

<동정자료>

김정렬 차관, “안전 보장 골든타임 사수” 강조

항공기 사고 가정해 안전한국훈련…초기대응능력·현장매뉴얼 적정성 점검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17일(목)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을 주재한다.
 - 실제 항공기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국토부·공항공사·지자체·항공사·소방·병원·경찰 등 19개 유관기관 약 350명이 참여하여,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 접수부터 대응, 부상자 후송까지 사고처리 전반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 특히, 올해는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항공기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훈련으로 기획했으며, 실제와 같이 훈련을 진행한다.
-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며,
 -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평소 훈련이나 연습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와 같은 훈련과 연습의 반복만이 최선의 예방으로 상시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대응역량과 비상계획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이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2018. 5. 17.

국토교통부 대변인